

“日, 세계유산 등재 ‘조선인 강제징용’ 명기 검토”

한·일 외교장관회담·실무협의를 합의 도출

등재문 주석에 ‘강제성’ 표현 세부 문구 조율중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중인 자국 산업 시설에서 조선인 강제 노동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등재문 주석에 기술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양국은 21일과 23일 도쿄에서 각각 열린 한일 외교 장관 회담과 국장급 협의에서 이 같은 방안에 대략적인 합의를 도출, 구체적인 문안을 놓고 막바지 협의를 벌이고 있다.

한국 측에서 쓰는 ‘강제징용 피해자’라는 용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그간 ‘징용공’(徵用工)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왔기에 강제성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를 놓고 양측 간에 막판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양측은 한반도에서 노동자를 데려가는 과정 등과 관련해 ‘강제’라는 표현을 넣을지에 대해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일본 측은 각 시설의 현장

설명판,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 설명문, 방문자용 팸플릿 등에 조선인 강제노동 사실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일본 언론에 보도됐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오는 29일 세계유산 등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독일 본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때 조선인 강제징용을 설명하는 추가 문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애초 자국 산업시설들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본은 대상 기간을 조선 강제병합이 이뤄진 1910년 이전으로 한정했다고 주장하며 한국이 문제를 제기하는 강제징용은 시기가 다르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하지만 유네스코 자문기구가 일본 측에 해당 시설들의 ‘전체 역사’를 알리라고 권고하고, 한국이 세계유산위 위원국들을 상대로 강제징용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자 강제징용 반영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지난달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는 일본 규슈(九州) 지역을 중심으로 한 8개 현에 걸친 총 23개 산업 시설의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유네스코에 권고했다.

일본 정부가 추천한 이들 23개 시설에는 나가사키(長崎) 조선소, 하시마(端島·일명 ‘군함도’) 탄광 등 조선인 수만 명이 강제노동한 현장 7곳이 포함됐다. /연합뉴스



24일 일본 도쿄도 주일한국문화원에서 개막한 전시회에 고종황제의 고명딸인 덕혜옹주(德惠翁主·1912~1989)의 복식을 재현한 전통 의상 등이 전시돼 있다.

덕혜옹주 유품 조선왕실 복식 돌아왔다

日 문화학원 복식박물관, 소장품 7점 한국 정부에 기증

대한제국 고종황제의 고명딸 덕혜옹주(德惠翁主·1912~1989)의 유품 중 복식 7점이 일본에 보관돼 있다가 한국 측에 반환됐다.

일본 문화학원 복식박물관은 24일 오전 일본 도쿄 주일한국문화원에서 한국 문화재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들 복식을 한국 정부에 기증했다.

기증품은 덕혜옹주가 일본에 머물 때 남긴 조선왕실 복식 중 일부로 당의(唐衣, 조선시대 여자 예복), 홍색 스란치마, 치마, 송화색 숙고사 반회장저고리, 진분홍 저고리, 풍차바지, 단속곳 등 7점으로 구성됐다.

이들 기증품은 24일 오후 한국으로 운송돼 국립 궁극박물관에 보관된다.

서울에 있는 조선성유·퀵트박물관 김순희 관장이 오랜 교분이 있는 오누마 스나오 이사장을 설득해 복식을 기증하도록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계에서는 이들 복식이 덕혜옹주의

유품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동시에 조선시대 왕실 유물로서 복식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라고 평가하고 있다.

덕혜(德惠)는 대한제국 황제자리에서 강제되어 당하고 나라를 빼앗긴 조선 제26대 왕이자 대한제국 초대황제인 고종과 궁녀 출신 복녕당(福寧堂) 양귀인(梁貴人) 사이에서 1912년 태어났다.

어머니가 정실이 아닌 점과 나라는 망했지만, 왕의 딸이라는 점 때문에 옹주(翁主)라는 칭호를 쓴다.

덕혜옹주는 1925년 일본으로 강제 유학을 갔다가 1931년 쓰시마(對馬) 중가노 다케유키(宗武志·1908~1985) 백작과 정략 결혼했다. 그는 10대 후반부터 조발성 치매증세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1955년 이혼했다.

덕혜옹주는 1962년 귀국으로 돌아와 장덕궁 낙선재(樂善齋)의 수간재(壽康齋)라는 곳에서 머물다 1989년 사망했다.



北 100년만의 가뭄 북한이 100년만의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23일(현지시간) 평안남도 남포시에서 한 주민이 메마른 옥수수밭 사이로 걸어가고 있다. 북한은 가뭄의 여파로 올해도 식량 수급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파키스탄 폭염...사흘새 사망자 500명 육박

남아시아 파키스탄의 남부에서 이례적인 폭염으로 사흘새 47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신화통신이 현지 국영TV를 인용,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남부 항구도시 카라치의 주요 병원 4곳에서 약 300명이 폭염에 사망하는 등 최근 사흘동안 폭염 사망자가 474명에 달했다.

카라치 시내의 국영 진나병원 원장인 세

미 자말은 “자신의 병원에서만 200명이 사망했다”며 “이들 희생자 대부분은 50세 이상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3000명 이상이 폭염 때문에 입원했다면서 약 200명은 위중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사망자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사흘간 카라치를 비롯한 파키스탄 남부

에서 최소한 260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파키스탄 남부 기온은 예년과 달리 최고 섭씨 43.8도에 달했다.

폭염 사망자는 카라치 주민이 대부분이었다.

아라비아해에 면한 항구도시 카라치는 파키스탄의 옛 수도로 현재 인구는 2000만명에 달한다. 또 파키스탄의 금융 및 경제 중심도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카라치에서도 파키스탄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정전이 잦다. 지난 21일 밤에도 정전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무더운 집에서 지내지 못해 공원이나 해변으로 나와 밤을 새야 했다.

이에 정부는 병원 의료진 휴가를 잠정 중단시키는 등 ‘병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에도 도움을 요청했다.

군은 카라치 시내 10곳에 임시 치료센터를 마련했다.

기상당국은 수일내 폭염이 진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

“美 NSA, 올랑드·사르코지·시라크 감청”

佛언론 위키리크스 인용 보도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을 포함한 전·현직 대통령 3명을 감청했다고 프랑스 신문들이 폭로 전문 웹사이트인 위키리크스를 인용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감청 대상에는 올랑드 대통령을 포함해 자크 시라크,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포함됐다고 일간 리베라시옹과 탐사보도 전문매체인 ‘메디아파르’가 전했다.

위키리크스는 NSA가 일급비밀로 분류한 문건을 인용, 감청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이뤄졌다고 폭로했다.

이같은 폭로에 대해 프랑스 대통령府는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올랑드 대통령은 폭로 내용 파악 등을 위해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했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문건에는 그리스와 유로존 경제 위기, 중동평화 과정, 올랑드 정부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독일 정부와의 관계 등에 대한 대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연합뉴스

**APT
담보대출**

상가·주택
담보대출

감정가대비
70%

회원전용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

자신만만자유예탁금 - 하루만 맡겨도 최대 1.7% 이율 적용

(금액 단계별 차등이율이 적용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

자산맞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상

1. 자동차 3년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건 이상 2장)
2.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3. 정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1천만원 이상)
4.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5. 정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1회 불입금 30만원 이상)
6.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초회 공제료 5만원 이하 -1장, 10만원 이하 -2장, 10만원 이상 -3장)
7.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이체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과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쟁입회 후 추첨 예정)

경품안내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4등 - 족욕기(10명)
* 2등 - 의류 스타일러(1명)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3등 - 아이패드(3명)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1.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2.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3.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조건 유지자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외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